2019~2021 대전 방문의 해

Daejeon Civic Youth Choir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 (만년동 396) 대전예술의전당 내
Tel. 042) 270-8372~5 Fax. 042) 270-8379
dcyc.artdj.kr

※ 이 브로슈어는 대전광역시의 '대전 10색(色)' 중 '첨단색'과 '열정색'을 주 색상으로 선정하여 제작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열정적으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미래 청소년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Daejeon Civic Youth Choir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Artistic Director & Principal Conductor
Kyoung Pil Cheon

2019~2021 대전 방문의 해

SEASON 2020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DAEJEON CIVIC YOUTH CHOIR

04 2020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06 대전광역시 인사말
07 예술감독 인사말
08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소개
10 예술감독 소개
12 전임지휘자 · 트레이너 · 피아니스트 소개
13 2020년도 다짐
14 2020 시즌 주요 연주 일정
16 제75회 정기연주회
18 제76회 정기연주회
20 기획연주회-해외연주 프리뷰 연주회
21 마스터 클래스
22 기획연주회-2020 청소년합창페스티벌
24 유럽투어 연주
26 단원 소개
29 정기회원 및 단원모집 안내
30 연혁

contents

모이고
노래하고
춤추며
미래를 꿈꾼다!

—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Daejeon Civic Youth Choir

대전의 미래, 청소년들의
반짝이는 눈빛
즐거운 속삭임
설레는 만남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순수한 마음이 모여
희망을 노래하는 곳~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과 함께 대전의 청소년문화를 세우며…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2간지 중 첫 번째인 쥐의 해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부지런한 쥐처럼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민선 7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정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 · 관 · 정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0년은 지난해에 이은 '대전 방문의 해'로 대전여행 1천만 시대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여행 상품 개발 · 운영과 도시여행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행 도시 면모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전시공연과 스포츠마케팅, 첨단 ICT 신기술을 접목한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기반 마련을 통해 대전을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관내 중 · 고 · 대학생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미래의 꿈을 노래하는 시립예술단입니다. 대전의 청소년 공연문화를 선도하며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가능성과 순수함이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이 만들어 나가고, 청소년들이 간직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곳입니다.

특히 올해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대전예술의전당과 함께 '천고' 발행 100주년을 기념한 창작 합창 음악극 '단재의 혼'을 개최합니다. 이 공연은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의 독립 영웅 이야기 시리즈 총 4부작 중 세 번째 작품으로 단재 신채호의 생애를 연극적 요소와 안무, 영상과 음향의 효과를 더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의 연주를 통해 문화예술을 마음껏 향유하시며,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널리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0. 1
대전광역시

대전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한 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상징인 쥐처럼 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올해도 시민 여러분께 새롭고 다양한 레퍼토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인 류시화는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 부족은 태어나면서 자신의 노래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신만의 노래를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작별할 때는 자신만의 노래를 갖고 떠난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불러 주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늘 자신만의 노래와 함께 삶을 여행한다고 합니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늘 음악이 함께 흐르는 삶이 되도록 행복한 노래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힘이 들 때에도 좋은 노래로 풍요로운 삶을 가꾸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특히 올해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해외초청연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전을 넘어서 세계로, 대전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과 대전청소년들의 열정이 깃들여진 고운 목소리를 전하고 오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초청연주를 통해 세계 합창계의 흐름에 함께하고, 앞서 나가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의 미래를 설계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합창단 단원들도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대전 곳곳에서 음악의 즐거움을 전해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1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천 경 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꿈꾸는 나무들, 하모니로 미래의 숲을 이루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1982년 창단이후 중 · 고등부(Intermediate Choir)와 대학생(Concert Choir) 합창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또는 연합(Combine)으로 연주를 하며, 여러 형태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노래하는 가장 이상적인 청소년합창단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시즌별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천경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취임부터는 전통적인 유럽과 미국의 합창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실험과 도전을 통한 세계인이 공감할 청소년 레퍼토리 개발과 합창 발성을 이루어 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충효', '가족', '사랑'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은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전석 매진을 이끌고 있다.

1988년 〈제14회 구마모토 국제청소년음악제〉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0년 〈온갖 새들을 부르는 노래〉, 2009년 〈반디의 노래〉 환경 뮤지컬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창의적인 음악문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2007년 한국 합창단으로 유일하게 참가했던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및 〈치체스터 음악회〉에서의 연주는 우리 청소년 합창단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문화사절로서 대전의 위상을 한껏 높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4년 8월, 유엔 유네스코(UN UNESCO) 산하 세계합창연맹(IFCM)에서 개최한 '세계합창심포지엄 및 합창축제(WSCM)'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참가했으며, 2015년에는 음악과 평화의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잘츠부르크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음악페스티벌에 참가해 맑은 영혼의 소리로 유럽인들에게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의 하모니는 찬사를 받았다.

배우며 노래하는 창의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매 연주 뛰어난 기량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Daejeon Civic Youth Choir

Dreaming Trees make Future Forests

The Daejeon Civic Youth Choir is a Municipal Performing Arts Group belonging to Daejeon Metropolitan City, one of the six major metropolitan cities in Republic of Korea. Daejeon Metropolitan City is a city with a population of 1.5 million, and it is a good place to live because of its combination of science and art. The Daejeon City Youth Choir(DCYC) was established in 1982 with the support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is leading the revitalization of youth music culture in Daejeon.

The Daejeon Civic Youth Choir, which creates a new chorus with excellent technique and advanced technique, has been active in concert performances such as regular concerts, project concerts, and visiting concerts.

The Deajeon Civic Youth Choir took the opportunity to become active on a worldwide scale through the 14th International Youth Music Festival in Kumamoto in 1988. The two 'Environmental' musicals, which were "The Singing Songs, Calling all kinds of Birds" in 2000, and "The Lightning Beetle's Songs" in 2009, received reviews to have great effects on building upright characters for adolescents and making creative culture music. In particular, the performance of our youth choir who only participated in the United Kingdom's Edinburgh Festival as well as the Chichester Concert was the beginning of the rising up of the domestic and world stages as cultural ambassadors.

Also, they participated in the World Symposium for Choral Music (WSCM), which was hosted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 (IFCM) which is under the UN UNESCO Organization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Chorus in August 2014, and from 2012 the Intermediate and Concert Choirs performed individually or combined with a wide repertoire of songs, and they are gaining attention as an ideal chorus from all over the world.

In 2015, they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horus Festival, which was held in the cities of music, Vienna and Salzburg in Austria, and also in Prague, Czech Republic., and performed to the whole world with the pure soul of the sound of the Daejeon Civic Youth Choir's beautiful harmony.

Homepage dcyc.artdj.kr
E-mail dcyc@hanmail.net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_ 천경필

끊임없는 열정과 경이로운 몰입으로 합창의 매력을 선사하는 우리시대 지휘자!

소리를 상상하며 특유의 재능과 열정으로 지휘 인생을 그려 나가는 천경필 지휘자는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를 졸업하고, 1997년 이탈리아 조르조 페데리코 게디니(G. F. GHEDINI) 국립음악원에 입학하여 성악과 합창지휘를 공부하였다.

2001년에는 이탈리아 로마 인터내셔널 아트 국제 아카데미에서 합창과 오케스트라 지휘의 대가인 파올로 따리초티(Paolo Tariciotti)에게 합창지휘를 사사하였으며 최우수 졸업하였다. 2002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가에타노 도니체티(G. DONIZETTI)아카데미에서 알베르토 모따에게 합창지휘를 사사받고 역시 최우수 졸업하게 되어 유럽 무대에서 그의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2003년 이탈리아 바레세(VARESE)시에서 주최하는 최고 합창지휘자 코스에서 벨기에 국립방송국 지휘자 에릭 플로리앙(Heyerick Florian)에게 사사함과 동시에 최우수 지휘자로 선발되어 한국인 최초로 바레세(VARESE)을 지휘하였다. 이날 많은 저널리스트들은 "바로크 음악의 탁월한 해석"이라는 찬사를 보내며, 유럽에서 데뷔 무대를 갖은 동양에서 온 젊은 지휘자에게 주목하였다.

그 후 유럽 국제 에이전트 아르까디아에 소속되어 많은 오페라 솔리스트와 합창단을 지휘하며 유럽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였다.
한국에 귀국한 후에는 성악전공자를 중심으로 한 대전필콰이어를 창단하여 새로운 합창음악에 도전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합창단 상임지휘자로 부임하여 영재들을 위한 대학합창의 장을 펼쳐 나갔다. 또한 청소년 합창교육에 관심을 갖고 평송청소년합창단을 창단하여 청소년 교육에 힘을 쏟았으며, 2008년 공주 필하모니 합창단을 창단하여 낙후된 지역음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해 7월에는 대전시립합창단을 객원 지휘하였다.

2013년 대전광역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대전 청소년합창음악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2016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어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 청소년 합창음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우리시대 지휘자로서의 역량을 펼쳐 나가고 있다.

Artistic Director & Conductor, Kyoung-Pil Cheon

Conductor of our time presents appealing choir with endless passion and phenomenal immersion!

Artistic Director & Conductor, Kyoung-Pil Cheon is a conductor who is imagining the sound of music and painting his conductor life with special talent and passion, and graduated and studied vocal music and chorus conducting in Giorgio Federico Ghedini National Academy of Music (G.F. GHEDINI).

In 2001, he studied under Paolo Tariciotti, who was a master conductor of Choir and Orchestra at Agent International Art (A.I. ART) in Rome, Italy, and he graduated as the best student. In 2002, he studied Choral Conducting under Alberto Motta at Gaetano Donizetti Academy (G. DONIZETTI) in Milan, Italy. Again he graduated as the best student. It led him to be recognizable in the European stage. In 2003, he studied under the Belgian National Broadcast Conductor, Heyerick Florian, and was selected as the best conductor at the same time in the top choir conducting course, which was hosted by the city of Varese in Italy. On that day, many journalists paid tribute to his outstanding performance by saying "Exceptional interpretation of Baroque music," and they began to notice this young conductor from Asia who had just debuted.

After that, he belonged to European International Agent, Associazione Arcadia, and actively conducted many opera soloists and choir performances. After returning back to Korea, he founded the Daejeon Phil Choir, which was composed mainly of vocal music majors, and challenged the new chorus music. Also, he was appointed as a conductor in the KAIST choir and he started a new chapter of college choirs for gifted students. In addition, he became interested in youth choir education and he founded Pyeungsong Boys Choir to put his effort towards youth education. In 2008, he founded Gongju Phil Harmony Choir to dedicate local music development in lagging areas. In the same year in July, he conducted as a guest conductor in Daejeon Civic Choir.

In 2009, he established the Daejeon Parish Girls and Boys Catholic Chorus and was appointed as a music director at the same time. So, he dedicated research to youth chorus music and religious music and in 2013, he was selected as chairman of the Daejeon Metropolitan Girls and Boys Chorus Conductor Federation. He is currently leading Daejeon youth chorus music very actively.

Since 2016, he has been appointed as Art Director of Daejeon Civic Youth Choir and is presenting a new model for future youth chorus music.

전임지휘자 **박주현** *
Resident Conductor_ Joo Hyun Park

유타주립대학교 합창지휘 석사졸업
아리조나대학교 합창지휘 박사(ABD)
미국 솔트레이크 코랄 아티스트 어시스트 지휘자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전임지휘자
화성필코러스 지휘자
대전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 출강
(사)한국합창총연합회 국제교류팀장

트레이너 **장광석**
Trainer_ Kwang Suk Chang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졸업
비엔나시립대학교 오페라 석사 졸업
비엔나 슈베르트 음악원 외래교수
중부대학교, 한국영상대 외래교수, 충남대학교 출강
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상임 트레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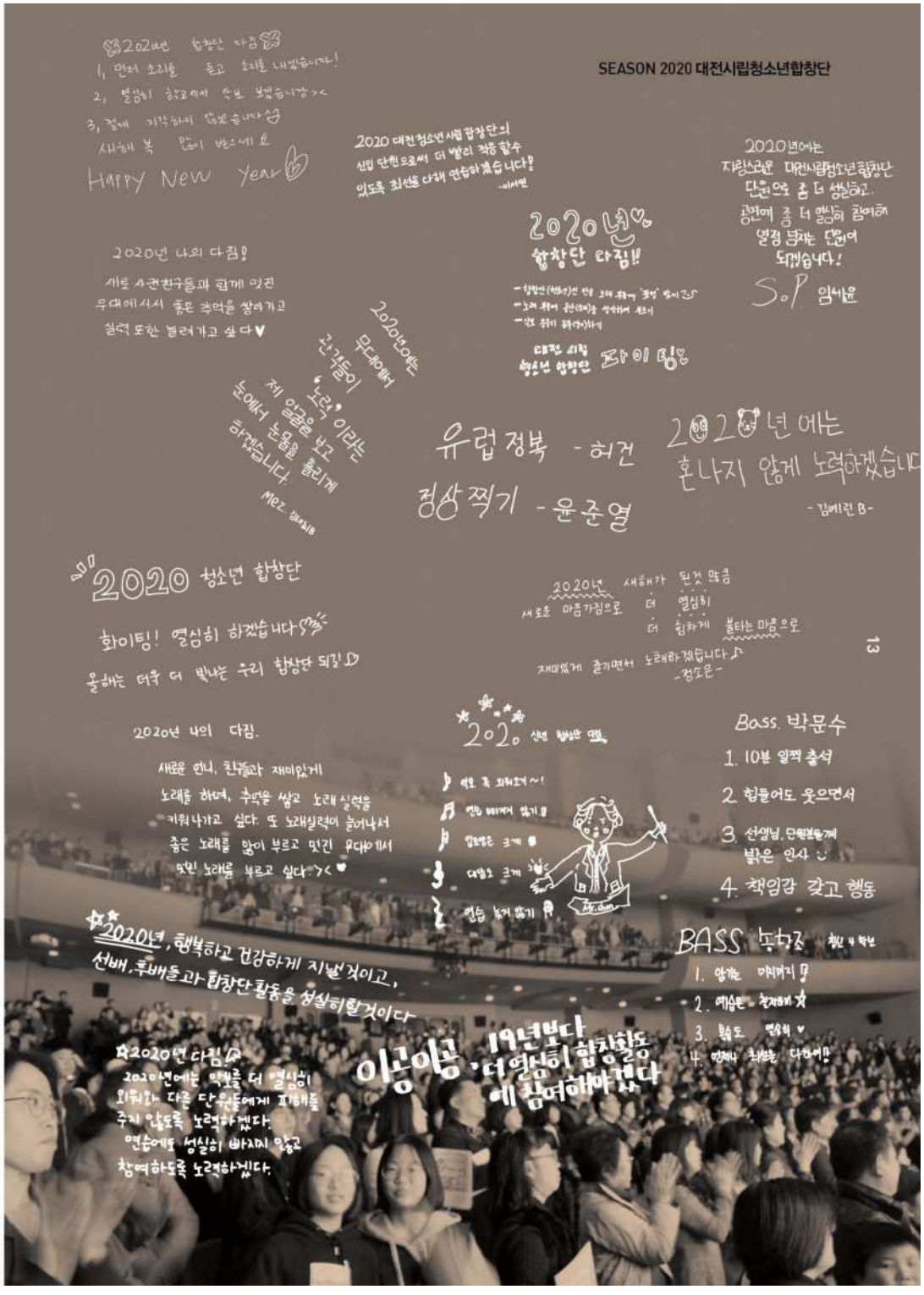
피아니스트 **오효순**
Pianist_ Hyo Soon Oh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피아노전공) 졸업, 동대학원 음악과 졸업
대전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 강사 역임
대전 필콰이어 반주자, 대전여성 CBS 반주자 역임
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상임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정현정** *
Pianist_ Hyun Jung Jung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수석졸업(피아노전공)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수료
스트링디아츠챔버오케스트라 객원 연주
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피아니스트
The 아카데미, 기악 앙상블 W_Ensemble 단원, 성악앙상블 디앙 반주자

* 비상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공연프로그램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정기연주회

03. 28 (토) 17:00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제75회 정기연주회 "단재의 혼"

11. 28 (토) 17:00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제76회 정기연주회 "호두까기 인형의 전설"

기획연주회

06. 13 (토) 17:00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해외연주 프리뷰 콘서트

10. 17 (토) 17:00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2020 청소년합창페스티벌

해외연주

07. 23 (목) ~ 08.03 (월)
네덜란드 · 벨기에 등
유럽투어 연주

수요브런치

05. 20 (수)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화목한문화산책

04. 23 (목) 19:30
새여울초등학교

06. 23 (화) 19:30
동구청 12층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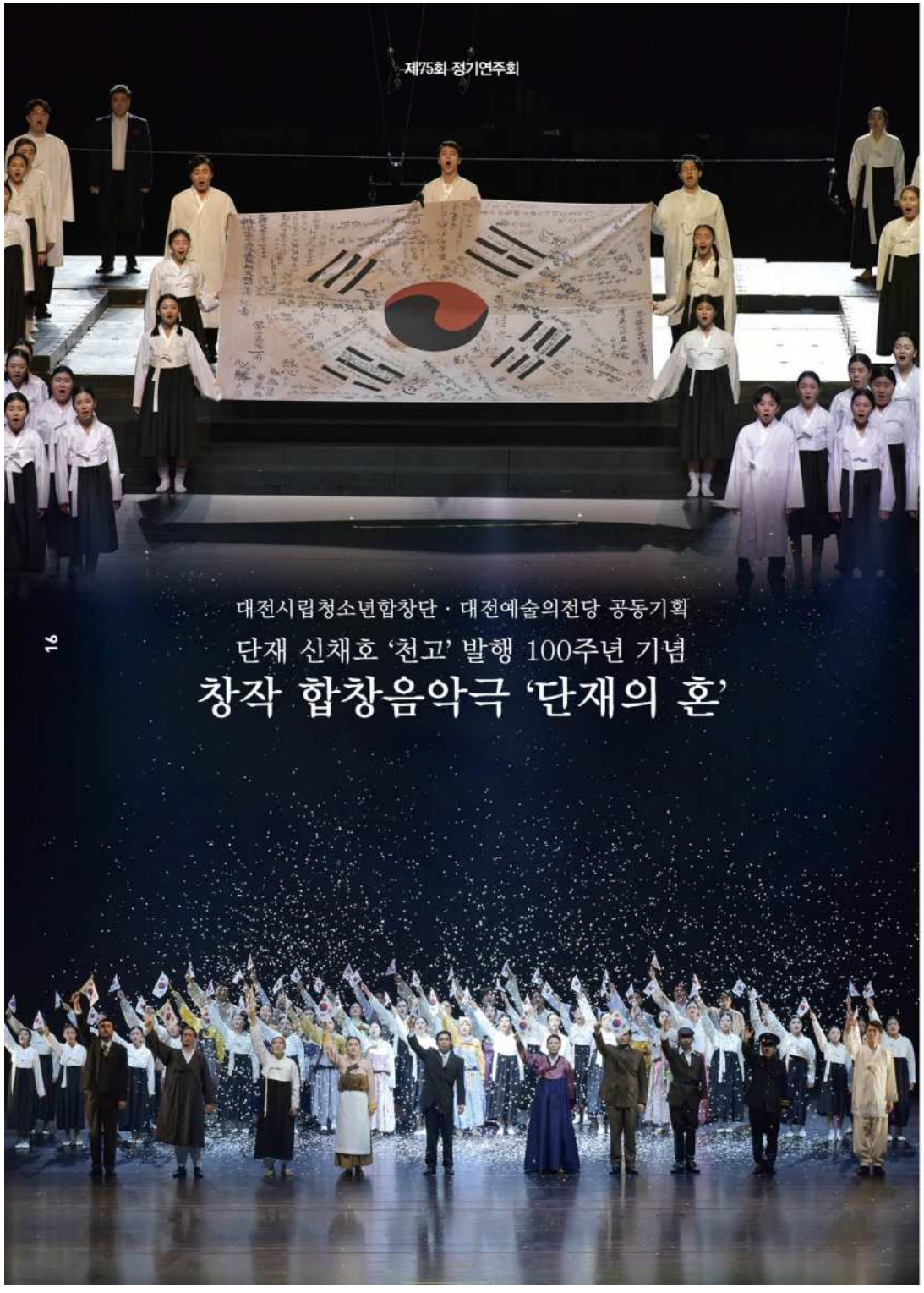
10. 13 (화) 19:30
죽동초등학교

찾아가는 연주

09.17 (목) 12:30
전자통신연구원

12.17 (목) ~ 18 (금) 11:00
대전평생학습관

청소년합창단의 음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곳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학교, 기관, 시설 등)
Tel.(042)270-8372 / E-mail:dcyc@hanmail.net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 대전예술의전당 공동기획

단재 신채호 '천고' 발행 100주년 기념

창작 합창음악극 '단재의 혼'

창작 합창 음악극(Cantata Music Drama) 장르로 만나는
독립 영웅의 정신!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공동기획으로
선사하는 가슴 벅찬 감동의 무대를 만난다!

일 시 3. 28(토) 오후 5시
장 소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총감독 천경필
작 곡 정순도
대 본 정 준
연 출 윤상호
편 곡 안성혁, 김민아
입장료
R석 20,000원
S석 10,000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_ 단재 신채호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공동 제작으로 애국 열사들의 뜨거운 삶을 그려낸 창작 〈합창 음악극〉을 4부작 시리즈로 무대에 올리고 있다. 그동안 '마지막 편지', '그 날의 외침 1919'공연이 전석 매진의 호평을 받은데 이어, 2020년에는 대전 역사 인물을 조명하는 프로젝트로 단재 신채호 '천고' 발행 100주년을 기념해 '단재의 혼'을 무대에 올린다.

대서사적 합창 중심의 칸타타 형식에 종합 예술적 장르의 음악극 요소와 연극을 콘서트로 표출하는 '칸타타 음악극 형식'으로 창작된 '단재의 혼'은 독립 운동가의 삶과 열정을 되돌아보고 관객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민족적인 자긍심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키워 주고자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다.

청소년합창 작품 이상의 높은 예술성 작품을 만나게 된다!

예술감독 겸 지휘자 천경필, 작곡가 정순도, 대본 · 작사 정준, 그리고 윤상호 연출 등 각 분야 최고의 예술가들이 무대를 만든다.
특히 장기간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와 시나리오 검토를 통해 대본 초안을 직접 집필한 천경필 예술감독 지휘 아래 음악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국회대상 '2013 올해의 뮤지컬 상'을 비롯하여 매년 대본 · 작사로 참여한 작품의 수상 및 당선을 이끈 정준 작가가 대본 · 작사로 참여하여 극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역사란 과거의 사실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관객,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연극적 요소와 안무를 도입하고 영상과 음향의 효과를 더해 현실감 높은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단재의 혼'은 이미 오래 전 별이 되어 사라진 독립 영웅들의 탄식과 절절한 애국심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되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전해줄 것이다.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 합창

"호두까기 인형의 전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어김없이 찾아 오는 발레 공연
〈호두까기 인형〉이 스토리가 있는 합창으로 찾아 온다.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발레 음악의 익숙한 레퍼토리가
호두까기 인형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합창으로 재해석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캐럴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울려 퍼지는 무대를 선사한다. 장르를 뛰어넘는 특별한 무대를 통해
음악이 주는 감동을 더욱 크게 느껴보자.

SYNOPSIS

일 시 11.28(토) 오후 5시
장 소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예술감독 · 지휘 천경필
작 · 편곡 안성혁
대 본 임정화
입장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호두까기 인형의 숨겨진 이야기.
평화로운 어느 마을, 숲 속 깊은 곳에 사는 사악한 마녀가 마을로 내려와 가장 아름다운 아이를 호두까기로 만들어 버리는 저주의 마법을 건다는 전설이 내려 온다. 그 저주는 오직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단 한 사람만이 깰 수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난 클라라에게 마녀가 찾아 온다. 아름다운 소녀 클라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PROGRAM

여성합창

Ave Maria	Cesar Carrillo
Witches Trio	L. Larsen
Fulemule	G. Orban
Da Kami Ay Anan-ak	Maria Theresa Vizconde-Roldan

혼성합창

흔들리며 피는 꽃	김새롬
Chariots	Peter Louis van Dijk
Tian Mi Mi	Traditional Chinese folk song / Mark D. Templeton
Leron Leron Sinta	Saunder Choi

스토리 합창

호두까기 인형의 전설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연주 프리뷰 연주회

독일 최고 예술가(궁정가수) 등극!

베이스 연광철 마스터 클래스

일 시 07월 18일(토)
장 소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연습실

일 시 06.13(토) 오후 5시
장 소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예술감독 · 지휘 천경필
입장료
전석 5,000원

PROGRAM

연합합창

Gloria John Rutter
I. Allegro Vivace
II. Andante
III. Vivace e Ritmocco

여성합창

Salve Regina Josu Elberdin
Northern Lights Ola Gjeilo
Koudjay Sydney Guillaume

혼성합창

Alleluia Alejandro D. Consolacion
Iuppiter M. Ostrzyga
Great God Almighty
arr. Stacey V.Gibbs

여성합창

님의 노래 조성은
옹헤야 조혜영
세노야 조혜영
퐁당퐁당 국 현
한강수 타령 arr. 이현철
BTS 메들리
(봄날 – 불타오르네 – 작은 것들을 위한 시)
arr. 차혜원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빈 국립오페라극장,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적인 극장을 섭렵하고 '현존하는 위대한 50인의 성악가'로 불리며
독일 최고 예술가(궁정가수)로 등극한
전설의 베이스 연광철 교수와 함께
미래 아티스트로서의 꿈과 가능성을 키워본다!

연광철 Kwangchul Youn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
베를린 슈타츠오퍼국립오페라단 단원 역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역임
제9회 대원음악상 대상(2015년)
제46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2014년)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콩쿠르 우승(1993년)

기획연주회

2020 청소년합창페스티벌

일 시 10.17(토) 오후 5시
장 소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입장료 전석 5,000원

순수하고 청아한 목소리로
놀라운 하모니를 전하는 청소년합창페스티벌!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을 비롯해,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CMB어린이합창단,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대전시민천문대어린이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_ 강금구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음악을 통한 소질 계발과 인재 양성을 취지로 1998년 4월 '용인소년소녀합창단'으로 창단되어 2001년 시립으로 승격되었다. 2016년 7월에는 문화예술전문기관인 (재)용인문화재단으로 소속으로 전환되어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음악적 색채라 할 수 있는 창작곡은 초연으로 선보인 곡들이 유수 대회에서 입상했으며, 무반주 아카펠라, 클래식, 뮤지컬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수준 높은 음악적 역량을 선보이고 있다. 청소년 음악예술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합창단으로서 현재까지 38회의 정기연주회와 350여 회 이상의 꾸준한 연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CMB어린이합창단 지휘_ 이은정

CMB어린이합창단은 CMB대전방송이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대전 충청 중부권 문화의 밝은 미래를 가꾸기 위해 2006년 12월 창단하였다.
보다 많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음악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합창을 통해 어린이들의 음악문화를 조성하고 자아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순수 공연단체로 대전지역 초등학생들로 구성되어있다.
CMB대전방송의 방송활동과 함께 12회 정기연주회 및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에 참여하며 그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_ 남 희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96년 시립으로 정식 발족, 음악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확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고자 매해 2회의 정기연주회와 시민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산본역만남음악회', '도서관방문음악회' 및 문화혜택이 부족한 단체 등을 방문하여 함께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연주회' 및 '요양원 방문연주'를 통해 관객에게 다가가는 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관외의 합창제 및 합창대회를 통해 군포시를 알리는 홍보대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평창에서 열린 세계청소년합창경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여 국내외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2001년 합창단 내에 청소년실내관현악단이 구성되어져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합창과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운 어울림으로 수준 높은 음악적 기량을 선보이고 클래식부터 현대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거부감 없는 음악회를 선보이고 있다.

대전시민천문대어린이합창단 지휘_ 이미현

반짝이는 별빛들이 모여있는 천문대어린이합창단은 2013년 4월에 하늘놀이터인 대전시민천문대에서 창단되어진 어린이합창단이다. 대전의 대표 어린이합창단으로서 2016년 4월에 독일 드레스덴 국제어린이합창단 페스티벌, 2018년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열리는 어린이합창페스티벌, 2019 독일 할레 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은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며 별빛처럼 반짝이는 어린이합창단이다. 또한 2020년 2월에 이탈리아, 영국 런던어린이합창페스티벌 참가 예정이며 매년 정기연주회와 주요 행사 특별출연은 물론 대전을 비롯한 전국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깨끗하고 청아한 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어린이 합창단이다.

2020 유럽투어

〈네덜란드 국제 청소년음악페스티벌〉 & 〈벨기에 국제 음악페스티벌〉 초청연주!

한국을 대표하여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기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 마련과 청소년합창단의 국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2020 유럽투어'에 오른다.

벨기에 '크노케 하이스트 썸머 뮤직 페스티벌' 공연

07.25(수) 20:00

벨기에 'Klassiek Leeft Meesterlijk'은 벨기에 여왕이 지원하는 세계 3대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공식 파트너 페스티벌이다.
벨기에 북해 연안의 도시 크노케 하이스트에서 여름에 열리는 국제 뮤직 페스티벌, 휴양 도시로 유명한 벨기에의 크노케 하이스트에서 열리는 이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솔리스트와 앙상블의 공연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매년 전 공연이 거의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립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 in 헬데를란트

08.01(토) 20:00

2007년부터 매년 NJO에서 개최하는 썸머 뮤직 페스티벌은 젊은 음악적 인재 육성에 주점을 두고 있다.
오페라, 뮤지컬, 오케스트라, 실내악, 댄스, 음악극 등 85개가 넘는 공연이 열릴 뿐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이클링과 같이 걸으면서 자연을 발견하는 활동적인 프로그램과 야외 공연등, 헬데를란트(Gelderland) 전주를 걸쳐 진행된다.

※이 외,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의 유럽투어 연주가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 등은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단원
DCYC Members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Artistic Director & Principal Conductor

천경필
Kyoung Pil Cheon

전임지휘자
Resident Conductor

박주현 *
Joo Hyun Park

트레이너
Trainer

장광석
Kwang Suk Chang

피아니스트
Pianist

오효순
Hyo Soon Oh

정현정 *
Hyun Jung Jung

사무국
Executive office

사무국장
김이석
Ye-Seok Kim

기획팀장
고은랑
Eun-Rang Go

홍보 · 마케팅 차장
홍상은
Sang-Eun Hong

운영차장
이혜원
Hae Won Lee

악보담당
이상율 *
Sang Yool Lee

* 비상임

중 · 고등부 Intermediate Choir

소프라노
Soprano

황혜윤

서민지

안 샘

정민선

이예지

임세윤

장진아

이서연

권미래

메조소프라노
Mezzo Soprano

김태희

강수인

최지성

김예린A

김예린B

이지혜

이지영

김효진

정소은

이유미

김태희

나윤희

김서연

알토
Alto

김민정

박연주

유아영

유다연

윤혜주

김윤겸

윤나연

이승미

최수빈

테너
Tenor

임충만

베이스
Bass

박성훈

윤준열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단원
DCYC Members

대학부 Concert Choir

소프라노
Soprano

박희수 홍승아 김혜린 안희경 김성은 김지은 송인서

메조소프라노
Mezzo Soprano

임푸름 유아영 박지오

알토
Alto

이도희 이경신

테너
Tenor

고종찬 김호준 채두환 최신웅 엄태호

베이스
Bass

이영훈 허 건 임현묵 송창조 박문수 홍석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정기회원
DCYC Membership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여러 특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dcyc.artdj.kr)와 페이스북 친구가 되시면 공연정보와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특혜
1. 본 합창단의 모든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회 관람 (회원석 - R석)
2. 전화예약을 통한 지정좌석 제공
3. 공연안내 홍보물 개별 우편발송
4. E-Mail 서비스 및 문자발송

가입문의
전화 042-270-8374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홈페이지 (dcyc.artdj.kr)

가입비
1. 개인 - 20,000원
   가족 2인 – 35,000원
   가족 3인 – 50,000원
   4인 이상 및 단체 - 15,000원×인원
2. 정기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622-910038-59605
   (예금주: 시립청소년합창단)
3. 가입기간 – 입금일로부터 1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단원 모집
Recruiting Members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에서는 성실하고 재능 있는 합창단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내용

구 분	모집부문	모집부문	응시자격	응시자격
중 · 고등부 및 대학부 단원	• 소프라노 • 알토 • 테너 • 베이스	• 자유곡 1곡 • 시창테스트 • 면접	• 예비중학생(현, 초6학년) • 중 · 고 · 대학생(남 · 여) • 대학(휴학생포함 만 24세 이하)	O 명

※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 중 · 고 · 대학생 또는 주민등록상 대전거주자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연습 : 청소년 – 주2회 이상 연습 참여 가능자 / 대학부 – 주3회 이상 연습 참여 가능자

2.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접 수 기 간 : 2020년 12월 중
(정확한 날짜는 홈페이지 추후공지 예정)
문 의 : (042)270-8372~5 (청소년합창단 사무국)
홈페이지 (dcyc.artdj.kr)커뮤니티 ⇒ 공지사항 참조

3.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응시원서 1부, 응시악보 2부(당일 지참 가능)
접수장소 : 청소년합창단 사무국
※ 주 소 : 우)352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
대전예술의전당 내

4. 특 전
1. 수준 높은 합창교육과 활발한 공연활동
2. 모든 공연의 각종 경비 지원
3. 분기별 장학금 전액 지원
4. 연습 시 식사 및 간식 제공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연혁
DCYC History

1982
대전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제1대 지휘자 안동민 취임

1989
제2대 지휘자 김영국 취임

1997
제3대 지휘자 김덕규 취임

1998
일본 구마모토
'국제청소년음악제'참가

2001
제4대 지휘자 김철수 취임

2002
미국 독립 224주년 기념
축하음악회 참가

2003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창단

2004
제5대 지휘자 김덕규 취임

2007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초청 공연

2008
제6대 지휘자 이영재 취임

2012
제7대 지휘자 김덕규 취임

2015
오스트리아 비엔나,
잘츠부르크, 체코 프라하
'국제음악페스티벌' 참가

2016
제8대 지휘자 천경필 취임

1982
Founded in

1998
In Kumamoto (Japan)

2007
In Chichester (England)
In Edinburgh (England)

2011
In Busan Choral Festival and Competition

2013
American Boy Choir Invitation

2014
10th World Symposium on Choral music participation

2015
The International Chorus Festival in Vienna, Salzburg, Prague